

광양매화마을, 12년 만에 '한국관광 100선' 선정

'대한민국 봄의 관문'으로 명성 지자체 추천·빅데이터 분석 평가 관광공사 20개국 32개 지사 홍보 설 연휴 여행 후기 이벤트 진행

대한민국 봄의 관문으로 꼽히는 광양매화마을이 12년 만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되찾았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대표 관광지 100곳을 2년 주기로 선정, 홍보하는 사업으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광양매화마을이 포함됐다.

광양매화마을은 1회째였던 '2013~2014 한국관광 100선'에 광양 섬진강매화가 선정된 후 한동안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7회째를 맞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 추천, 빅데이터 분석 등을 거쳐 예비후보로 선정, 서면·현장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며 12년 만에 다시 명예를 되찾았다.

이에 광양매화마을은 향후 2년간 국내 대표 여행정보 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안내되며, 국내외 관광객이 찾



광양매화마을이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광양시 제공

소에 배포되는 '한국관광 100선 지도'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양시는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지사(20개국 32개) 등을 통해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내용에 매화마을이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언어로 번역, 안내됨에 따라 1000만 관광객이 찾

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시는 '한국관광 100선' 선정을 기념하는 동시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난 설 황금연휴를 맞아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1월24일~2월3일)'와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1월24일

~2월9일)' 등 대국민 방문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설 연휴 가기 좋은 추천 여행지 100선을 확인 후 랜덤 캡처 이미지를 인증하거나 설 연휴에 다녀온 여행 수기를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 또는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visitkorea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한국관광 100선' 선정 배경에 대해 "광양매화마을의 우수성과 함께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섬진강권역 통합 관광벨트 조성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토대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양매화마을을 비롯해 백운산, 구봉산, 섬진강 등 광양이 가진 자원의 특색을 살린 권역별 관광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 '한국관광 100선'에 걸맞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매화마을은 한평생 매화밭을 일구며 시를 써온 흥소리 명인의 손길과 2000여개 향아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섬진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매년 3월 광양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광양매화축제는 봄의 전령사로 해마다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준다... 월 30만원 최대 3개월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양시에 주소를 둔 고용보험법에 따른 남성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액 시비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수혜 대상자는 12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다. 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상 자녀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신분증과 장려금을 받게 될 통장 사본,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월 단위 또는 3개월분을 일괄 신청해도 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시는 가능한 월 단위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장려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발급받거나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광양=안영준 기자

저소득층 가구 친환경보일러 설치비 지원

30가구 대상... 60만원 지원

광양시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총 30가구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6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되는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인증받은 2종 LPG 보일러 제품으로 교체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막내 자녀 만 18세 미만) △어린이·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양시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www.ecosq.or.kr/boile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공고에 안내돼 있으며, 궁금한 점은 광양시청 환경과(061-797-27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6382가정에 총 10억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가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광양읍 5일장, 중마시장, LF스퀘어 등에서 마스크 착용 및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광양시 제공

마스크 착용 등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광양시는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광양읍 5일장, 중마시장, LF스퀘어 등에서 마스크 착용 및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의

료기관·마트·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민 1000여 명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시는 의료진 및 환자와 문병객 간 감염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확인하기(병문안 가능시간, 허용인원, 장소 확인하기) △자제하기(감염병환자, 노약자는 병문안 자제하기) △지켜주기(병문안객 기록지 작성, 병문안 전·후 손위생, 애완동물과 음식물 반입 금지) 등 '병문안 문화개선 3대 원칙'도 홍보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설 연휴 기간 상수도 종합상황실 운영

광양시는 설 연휴 동안 수도물 단수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수도물 이용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설 연휴 기간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종합상황실 운영 기간은 오는 25일부

터 31일까지다. 광양시청 상수도과 공무원이 상황실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24시간 누수와 단수, 계량기 고장, 동파 등 상수도 관련 생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수도 관련 불편 사항은 상수도 상황실(061-797-4963)로 신고하면 바로 조

치 받을 수 있다.

김용식 상수도과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안전한 수도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물을 소량 흐르게 하는 등 수도관 동파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